

논문 작성과 연구윤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종갑





내 용

1. 논리적인 글

2. 연구윤리

» 논문이란

1. 주제에 대한 자신의 논리적 주장
2. Report와 다른 점은?
 - 리포트 현재 상태를 보고하는 것
 - 논문, 자신의 논리적 주장을 증명하는 것
3. 논리적 주장이 없다면, 논문이 아니다.



논문의 구성

1. 서론

2. 본론

3. 결론



논문의 구성-서론

● 서론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 직접적 언급: “본 글에서는 …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 해당 주제를 논해야 하는 이유 내지 필요성을 언급 (내가 논문에서 쓰려고 하는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글의 결론에 대한 언급도 가능

● 서론의 목적

- 독자로 하여금, 서론을 보고 필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 수 있게 작성
- 만일 서론에서 글의 주제가 언급이 안 된다면?
- 논문을 끝까지 읽어야 논문의 주제를 알게 된다는 불행
- 독자는 얼마나 지루하겠는가? (목적지를 모르면서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면…)
- 서론은 논문의 주제를 제공하고 서술내용을 제시하여, 독자가 주제를 알아, 논문의 방향성을 알고 읽을 수 있게 함.



논문의 구성-본론

- 자신이 주장을 객관화 하는 부분
- 논리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 자신의 글을 타인이 읽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주장에 동의하도록 하여야 함
 - 논리적,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까?
 -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 독자는 필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움
- 논리적인 글과 소설이 차이점은?



논문의 구성

- 체계적 구성
 - 일반적인 내용으로 부터 구체적인 내용으로 ? v.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터 일반적인 내용으로 ?
- 시간적 서술
- 역사적, 철학적 논증



논문의 구성

- 논문의 체계적 구성
 - 논증할 내용을 정리
 - 예컨대,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재산권 인정의 목적인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서술한 경우,
 - 이를 논증, 즉 증명해야 함
 - 소설은 논증이 필요한가?



논문의 구성

- 논증의 방법은
 - 여러 논점을 주장하여 자신의 생각이 객관적임을 입증
 - 소설과 다른 점- 소설은 객관적인 글인가?
- 법학과 증명 (논증)
 - 증명은 과학에서만 있는 것은 아님
 - 법학은 논리적인 글을 요구함



논문의 구성-주장의 객관화

- 자신의 글(주장)을 객관화 하는 방법은 ?
- 객관화란 ‘나 이외에도 다른 사람도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 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권력,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언급을 한 경우, 이로써 끝인가?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의 권력,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것을 나의 주관적인 주장(소설)이 아님을, 즉 객관화 해야 함.
 - 어떤 방법으로?



논문의 구성- 인용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일까?
-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근거로 제시
- 판결 중 위의 내용을 전제로 한 판결을 제시
- 정부의 공문서 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선언하거나 언급한 내용을 제시
- 학자들의 견해(논문) 제시
-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인용”하는 것임-> 각주에 표기함.



논문의 작성방법

- One sentence, one meaning!
 - 한 문장에 다의가 포함된 경우(중문, 복문), 독자로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 쉽지 않다.
- One sentence, not a paragraph!
 - 논문은 보고서가 아님
 - 논리적인 글은 한 단락(paragraph)에 주제, 논증, 마무리가 필요하다.
 - 한 문장으로 주제, 논증, 마무리를 할 수 없다.



논문의 구성-인용방법

- 인용의 방법은
 - 직접인용: 그대로 가져온 경우 i) “ ” 하거나 2) 양쪽 들여쓰기로
 - 간접인용 -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법조문, 판결, 정부공문서, 학설, 문서 등을 인용표시함 (각주나 미주로- 각 학술지는 인용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논문의 구성

- **주장은?**

- **논증은?**

본질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재산권 인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로크가

And indeed it was a foolish thing, as well as dishonest, to hoard up more than he could make use of. If he gave away a part to any body else, so that it perished not uselesly in his Possession, these he also made use of. And if he also bartered away Plumbs that would have rotted in a Week, for Nuts that would last good for his eating a whole Year, he did no injury; he wasted not the common Stock; destroyed no part of the portion of Goods that belonged to others, so long as nothing perished uselesly in his hands. Again, if he would give us Nuts for a piece of Metal, pleased with its colour; or exchanged his Sheep for Shells, or Wool for a sparkling Pebble or a Diamond, and keep those by him all his Life, he invaded not the Right of others, he might heap up as much of these durable things as he pleased; the exceeding of the bounds of his just Property not lying in the largeness of his Possession, but the perishing of any thing uselesly in it.⁴⁴⁾

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민정부를 구성하기 전인 자연상태(the State of Nature)에서 화폐 사용이 정당화 되는데, 화폐 사용은 하느님(God)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로크가 제시한 예와 같이 자두와 호두를 교환

하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였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썩어 없어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법을 위반하는 격과가 된다.⁴⁵⁾



논문의 구성

- 논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

45) Leo Strauss, supra note 7, p. 237.

4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C. B. MacPherson과 Leo Strauss이다.

47) John Dunn, supra note 32, pp. 45-46.

48) MacPherson에 대한 비판적 논점은 Karen I. Vaughn, John Locke's Theory of Property: Problems of Interpretation, Literature of Liberty, V.3, No. 1, pp. 5-37(1980).



논문의 구성

- 논증의 예
- 주장은 무엇인가?
- 논증은 어떻게 했나?

프랑스 혁명의 인간존중의 정신은 지적재산권법에도 나타났다. 1791년 프랑스헌법의회는 특허법 전문에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at every novel idea whose realization or development can become useful to society belongs primarily to him who conceived it, and that 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man in their very essence if an industrial invention were not regarded as the property of its creator.⁷⁹⁾

라고 하여 사회에 유용한 아이디어는 그것을 생각해 낸 자의 것이므로 창작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원초적인 법, 즉 자연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하였다. 발명과 창작에 대한 권리를 자연권에 기초한 권리로 인정한 것은 왕의 전제로 억압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자연법에서 기원하는 특허권은 강한 특허권이 되게 된다.



논문의 구성-타인주장의 직접인용 (양쪽 들여쓰기)

- 주장
-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인용
- 주장이 객관화 됨

수행하는 것은 자연에 노동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물은 인간의 생존과 편리를 위하는 것으로, 이것이 인간을 잘살게 하는 것(well-being)은 로크 이론의 본질적인 가치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재산권 인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로크가

And indeed it was a foolish thing, as well as dishonest, to hoard up more than he could make use of. If he gave away a part to any body else, so that it perished not uselessly in his Possession, these he also made use of. And if he also bartered away Plumbs that would have rotted in a Week, for Nuts that would last good for his eating a whole Year, he did no injury; he wasted not the common Stock; destroyed no part of the portion of Goods that belonged to others, so long as nothing perished uselessly in his hands. Again, if he would give us Nuts for a piece of Metal, pleased with its colour; or exchanged his Sheep for Shells, or Wool for a sparkling Pebble or a Diamond, and keep those by him all his Life, he invaded not the Right of others, he might heap up as much of these durable things as he pleased; the exceeding of the bounds of his just Property not lying in the largeness of his Possession, but the perishing of any thing uselessly in it.⁴⁴⁾

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시민정부를 구성하기 전인 자연상태(the State of Nature)에서 화폐 사용이 정당화 되는데, 화폐 사용은 하느님(God)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로크가 제시한 예와 같이 자두와 호두를 교환

⁴⁴⁾ Locke, supra note 8, §46.

(번역)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동안 재산이 상해서 쓸모없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는 재산을 이용한 셈이다. 만약 그가 또한 1조각이 지나며 상해를 자드를 주고 1년 내내 사용하지 않고 먹을



논문의 구성-타인 주장 등의 직접인용(따옴표 표시)

- “”에 의한 직접인용 (인용부분이 적을 때)

독일에서도 자유경쟁에 기반한 특허제도의 폐지운동이 발생했다. 1863년 독일의회는 특허는 복지에 해롭다고 결의했다. 프로이센정부는 북독일연방에서 특허법을 제정하는데 반대했다. 1868년 비스마르크 수상도 독일의회에서 특허보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했다.⁶⁷⁾ 스위스는 여러 번 특허법의 도입을 시도했으나 특허법의 도입을 거부했다. 스위스의 한 경제학자는 특허는 “유해하고 옹호될 수 없다”(“pernicious and indefensible”)고 선언했다.⁶⁸⁾ 네덜란드에서는 좋은 특허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869년 특허를 폐지했다.⁶⁹⁾ 이후, 특허존치론이 우세하게 되어 특허폐지운동은 중단되었지만, 특허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특허법의 공공성 강화로 나타났다.



논문의 구성-타인 주장의 간접인용

● 간접인용

다만, 로크의 재산권 취득 단서에 대해서 모든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C.B. MacPherson은 i) 부패하기 전까지 취득할 수 있고, ii)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두어야 하며, iii) 자신의 노동을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C.B. MacPherson에게 있어서 그러한 단서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변경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부패하기 전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화폐에 의해 저축이 되어 극복될 수 있으며,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인정한 결과 가치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인간은 이전 보다 더 풍족하게 되었으므로 충분하고 동등하게라는 단서는 필요가 없고, 충분하고 동등하게 남겨둘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의 보장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세 번째도 노동을 가해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동이 아닌 하인의 노동(로크는 “the Turfs my Servant has cut”이라고 하여 노예, 하인 등을 언급하고 있다.)을 통해서도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C.B. MacPherson, supra note 7(“Possessive Individualism”), pp. 197-221. C.B. MacPherson의 견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비판을 가하는데, 그중 하나가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이다.



논문의 구성-결론

- 결론의 구성은?
 - 논문의 결론을 내리는 것인가?
 - 논문의 결론은 본문 있어야 함-논문을 읽은 독자는 논문의 결론을 알아야 함
 - 결론은 마감하는 말- 매우 간단한 주장에 대한 결론과 그 결론의 의의 등을 마무리



연구부정행위-교육부 훈령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교육부 훈령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과 연구윤리

- 연구윤리의 인용과 저작권법상 인용의 관계는
 - 연구윤리는 윤리적인 문제 (법 위반도 윤리위반)
 - 저작권법상 인용-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 (저작권법상의 문제)
 - 저작권 보호되지 않는 것은, 저작권 침해문제 발생 없음 (공정사용의 문제도 없음)
 - 그러나, 연구윤리문제는 적용

(다음 페이지 계속)



연구윤리

- 아래 글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
-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나?
- 인용표시가 없다면, 연구윤리는

프랑스 혁명의 인간존중의 정신은 지적재산권법에도 나타났다. 1791년 프랑스헌법의회는 특허법 전문에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at every novel idea whose realization or development can become useful to society belongs primarily to him who conceived it, and that 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rights of man in their very essence if an industrial invention were not regarded as the property of its creator.⁷⁹⁾

라고 하여 사회에 유용한 아이디어는 그것을 생각해 낸 자의 것이므로 창작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원초적인 법, 즉 자연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하였다. 발명과 창작에 대한 권리를 자연권에 기초한 권리로 인정한 것은 왕의 전제로 억압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자연법에서 기원하는 특허권은 강한 특허권이 되게 된다.



연구윤리규정-연세대

제2조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0. 2. 9〉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11.07〉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 페이지 계속)



부당한 저자표시-교육부 훈령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연구윤리

- 연구윤리로서 인용은, 저작권법의 인용이나 저작권 침해와는 다른 문제임
- 저작권법의 인용표시 부족은 저작권 위반이자 연구윤리 위반
- 연구윤리 위반은 저작권법 위반이 없더라도 발생
- 타인의 아이디어를 차용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아이디어를 배운 경우에는 인용을 하자.
- 내 스스로의 생각이더라도, 타인과 공유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 객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생각을 가진 타인의 생각을 인용하자.



지식재산 연구윤리 규정-지식재산연구원

제5조 (연구의 진실성) ① 투고자는 논문과 관련된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투고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연구윤리 규정

제3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9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지식재산 연구윤리 규정

제3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0조 (출판 업적)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 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지식재산 연구윤리 규정

제3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1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 ①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②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얻어서 출판한다.

③ 업적을 늘리기 위해 논문 쪼개기를 하지 않는다.



지식재산 연구윤리 규정

제3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2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 주장 ·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식재산연구 인용방법

지식재산연구의 논문투고 서식에 있음.

- 단행본(국내 및 동양) 각주형식
 - 저자명 · 저자명, 『서명』, 역자명(역), 판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저자명 · 저자명, “논문명”, 편저자, 서명, 판차(2판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홍길동·이몽룡, 『특허법상설』, 제5판, 한세컴출판, 2014, 387면.
 - 홍길동,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제문제”, 권남성(편), 독점규제법 30년역사, 법문사, 2011, 386-387면.



지식재산연구 인용방법

- 단행본(서양) 각주형식
 - 저자명 & 저자명(성, 이름), 서명(이탤릭), 역자명(역), 판차(2판 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저자명 & 저자명(성, 이름), “논문명”, 편저자, 서명, 판차(2판 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ond edition, Oxford, 2004, pp. 25–60.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Antitrust Law Conflict in 000 Case”, Edit. by P. E. Thomas, *Antitrust Law*, 2nd Edition, Aspen Publicity, 2010, pp.25–60.

감사합니다.